

상장사, 실적 호조에도 무역전쟁때 ‘신용등급 ↓’ 우려

1분기 실적 올 첫 성적표 장밋빛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 가능성
핵 수출손실 269억달러 추정

GS칼텍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S&P)로 좋아졌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등급상향은 GS칼텍스가 신중한 재무정책을 유지하고 향후 12~24개월 동안 양호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이라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상장사들이 올해 첫 성적표(1분기 실적) 예상치가 장밋빛이다.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역전쟁에 휘말리면 '수출감소→실적 악화→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비용 ↑)'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민감한 글로벌 자금시장에선 이들이 '추락한 천사(fallen angel)'로 부른다. 시장에서는 철강, 정보기술(IT), 산업기계, 화학, 섬유, 자동차업종에서 신용(Credit)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자동차 실적 우려...철강 등 장밋빛
1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픽스타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각각 52조원과 36조8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3분기보다 높은 것이다. 작년 3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42조9000억원, 순이익은 32조1000억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올해 1분기 지주회사·복합기업, 철강·비철금속 업종의 실적이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주회사·복합기업 업종의 경우 현대로보틱스, 삼성물산, SK의 자회사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철강·비철금속 업종은 국내 철강 가격 상승과 달러 대

비 원화 환율 하락으로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동차·자동차 부품, 석유정제, 제약·바이오, 건설, 디스플레이 업종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안혁 한국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는 환율 하락과 미국 자동차시장의 인센티브 부담, 중국 공장 가동률 하락 부담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적은 기업 신용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개

선 업체 수가 증가하고 취약 업종 구조조정 진전에 따른 신용총액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 업체 수는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안정적'에서 '긍정적',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등급 전망이 상향된 업체는 19개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된 업체(10개)보다 많았다. 이는 지난 2016년 등급 전망 상향 변경 업체 13개, 하향 변경 업체 16개이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준이다.

어떤 기업이 제대로된 대접을 받을까. 나이스신용평가는 2018년 산업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해 석유화학과 반도체 업종 내 기업의 상황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화학과 석유화학 산업은 우호적인 업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품목의 수급 변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산업은 과점화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로 리스크가 감소될 것이라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 송태준 기업평가실장은 "최근 등급 하락의 주된 배경은 산업 추세 변화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경제 쏠림 현상 확대, 전통적인 경기순환 사이클 이탈 업종 증가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G2 무역전쟁이 실적 변수
앞으로가 문제다. 무역전쟁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무역전쟁에 휘말리면 '수출감소→실적 악화→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비용 ↑)'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민감한 글로벌 자금시장에선 이들이 '추락한 천사(fallen angel)'로 부른다. 시장에서는 철강, IT, 산업기계, 화학, 섬유, 자동차업종에서 신용(Credit)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이 외에도 지적재산권을 통한 통상압박이 실시된다면 IT, 제약 등에서 갈등도 언제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정부의 3% 성장을 장담하기 힘들다. 'AA'(S&P)인 국가 신용등급도 흔들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 수출 손실이 269억달러(약 30조6999억 원),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酬價)협상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내년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는 얼마?”

건강보험공단-의약단체, 수기 협상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酬價)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1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 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 의료단체는 다음 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보료를 관리,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이달 말까지 보건 의료 공급자 단체들과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 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결기구

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를 평균 2.3%, 작년에는 평균 2.4% 올려줬다.

이런 수가 인상 영향과, 특히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자원 마련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지난해 6.1%에서 올해 6.2%로 올렸다. 보험료 인상률로 따지면 2%였다.

지난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조원 가까이 쌓여온 건보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건보료를 동결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의식해 '적정 수가'를 보장,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분의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터여서 내년에도 '적정 부담-적정 급여' 기조 아래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복지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보료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3.2%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대기업 총수일가 66%, 비상장 계열사 보유

일감몰아주기 행위 논란 요소

효성, 비상장 계열사 가장 많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세 곳 중 두 곳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였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을 만나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런 주식 보유가 '일감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10년 뒤 미래를 기준으로 노력해달라는 뜻이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효성으로, 효성 총수일

가는 노틸러스호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모두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특히 14개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은 76.1%였다.

이어 GS가 2위를 기록했다. 보한개발, 승산 등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으며, 평균 지분율은 84.3%에 달했다.

자산 5조~10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중흥건설이 1위였다. 중흥건설 총수일가는 금석토건, 시티건설, 새솔건설 등 총 38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겼다. 평균은 88.4%였다.

호반건설은 15개, SM은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넘었다.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8%, 74.7%에 달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0세·최연소는 만 1세

#. 서울에 사는 A씨(110세)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기록됐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90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B양(만 1세)은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 B양은 2016년 6월생으로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17만9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A씨를 포함 총 85명이다. 남자가 14명, 여자가 71명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이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0세 이

상 수급자는 지난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5세 여성으로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8년 11개월 동안 8155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노령·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지난해 전체 연금수급자는 447만 5143명이며 이 중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 314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조8746억 90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하여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간 냈다고 가정한다. /이봉준 기자 bj35sea@